과감히 행하고 신중히 양보하며 적극 참회해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⑭ 반야 참회 주의 사항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⑵ 참회는 현실에서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불자들 중에는 참회를 하면 정상적인 욕망도 갖지 말아야 하고 정당방어적인 화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불자는 항상 양보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욕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욕망을 없애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또 무조건 양보하라는 가르침도 아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부드럽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다툴 수밖에 없으며, 자기의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도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부정(不正)이나 불의(不義)를 보면 항의하고 싸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불교에서 계행을 지키라든가 참회를 하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운전하면서 차선을 지키라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위반을 했다가도 곧 다시 본 차선으로 돌아오면 되지, 차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서 차를 아예 타지 않고 걸어만 다니겠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예를 들어 많은 돈을 가지고 밤늦게 길을 가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자. 이럴 때 거짓말이 악업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대답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바보짓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악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제까지나 부드럽게 대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주먹다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는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고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야 한다.

참회는 매우 중요한 불교 신행이지만 참회 때문에 과도한 결벽증이나 죄의식이 생겨서 현실 적응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참회가 아니다.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되,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과잉 대응이나 악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참회를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⑶ 현실에서의 양보는 신중해야 한다

참회를 하다 보면 현재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되어 빨리 고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한다. 참회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하면 현실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로 경쟁하거나 대립하면서 유지돼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양보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게 되면, 뒤늦게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 나의 뜻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액면 그대로 좋게 해석하기는커녕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한다면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양보할 때에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상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더라도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다.

불자의 무조건적 양보와 무욕은 오해
결벽증·죄의식 갇힌 참회 올바르지 않아

맹목적 양보와 손해 감수는 후회 야기
잘못 인정과 양보도 상황 고려해 신중히

정당한 이유의 악업도 행동엔 참회해야
따라 한 악업·가벼운 악업도 참회 대상

⑷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악업은 참회해야 한다

악업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당시에 자기에게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어쩔 수 없었던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자녀가 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꾸지람을 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에도 욕설을 한 일에 대해서는 참회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자녀를 바로 키우겠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녀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해도, 욕설은 악업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서만은 참회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일단 악업을 짓게 되면 그에 대한 과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참회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 악업에 가속이 붙어서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런 악업을 짓게 된다. 자녀를 꾸지람할 때 자꾸 욕설을 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욕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회는 악업의 가속화를 막는 데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⑸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악업은 악업이다

어떤 때는 악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므로 나도 별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도 참회를 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악업이 악업 아닌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이 하느냐 마느냐에 상관없이 자기가 판단해서 참회 대상이 되는 악업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참회해야 한다.

자기가 저지른 악업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자신에게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말처럼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 다만 과보를 받는 시기와 형태가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과보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⑹ 가벼운 악업이라도 참회해야 한다

흔히 가벼운 악업을 행한 경우에 별 죄의식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한 번 악업을 짓고 나면 그다음에는 같은 악업을 짓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러므로 가벼운 악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서 단 한 번 가볍게 눈을 흘겼다고 해도 참회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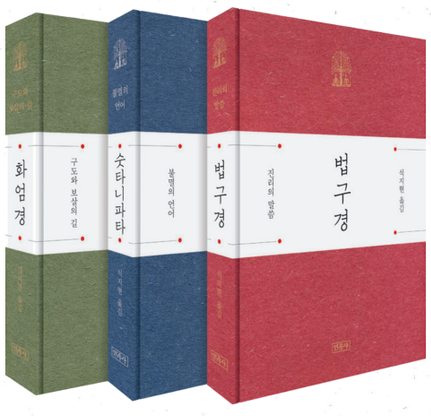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가벼운 악업까지도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악업을 거의 짓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 그만큼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가벼운 악업도 참회해야 한다고 해서 늘 죄의식에 빠져서 생활하면 안 된다. 참회는 죄의식을 소멸시키는 방법이지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참회 초기에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악업을 생각하면서 죄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지만, 참회가 진행되면 곧 마음이 편해지며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회한다고 하면서 계속 죄의식에 빠져 고통받는 것은 올바른 참회가 아님을 잘 알아야 한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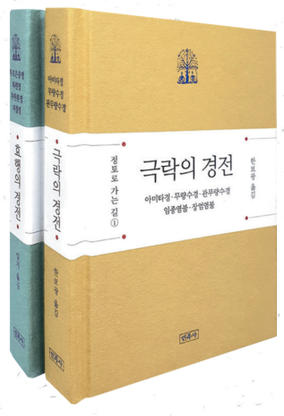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 합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